

‘르’ 말음 용언 어간 교체의 특징 연구

— 지역어 구술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

이은선(전북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X르르-’ 어간 재구조화의 확대 |
| 2. ‘X르-’ 어간의 교체 유형 | 5. 맺음말 |
| 3. ‘X르-’ 어간의 교체 양상의 특징 | |

1. 머리말

1.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현대국어의 ‘르’ 말음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을 지역어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 국어에 존재하는 ‘르’ 말음 용언은 다음과 같은 활용 양상을 보인다.

(1)

ㄱ. 따르다 : 따르고, 따르니, 따라 ...

ㄴ. 모르다 : 모르고, 모르니, 몰라 ...

ㄷ. 푸르다 : 푸르고, 푸르니, 푸르러 ...

(1ㄱ)은 자음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따르-’를 기본형으로 하여, 모음 어미 앞에서는 ‘으’탈락이 적용되어 ‘따라’로 실현된다는 설명이 가능하여 ‘규칙 활용’이라 부르는 것이고, (1ㄴ)은 모음 어미 앞에서 ‘으’가 탈락하는 것은 (1ㄱ)과 같으나 ‘으’가 탈락하고 ‘ㄷ’이 첨가되는 이유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르’ 불규칙 활용이라 부르는 것이며, (1ㄷ)은 모음 어미 앞에서 자음 어미 앞에서는와 같이 어간 ‘르’가 유지되고 있으나 결합하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데, 이 역시 음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여 ‘러’ 불규칙이라 부르는 것이다.¹⁾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들이 지역어에서 나타나고 있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2)

ㄱ. 물장을 켜엿 똥을 꺼 또 물장 하엿 먹꾸정 아녀머는 기자 윈 똥르지 아녕도 시방게 기자 그대로²⁾<제주>

ㄴ. 나 몰르전네. 아니 이씨쉴틴디 내가 몰르전네. <전북>

ㄷ. 거 너르른 강강 몰르른 인자 가서 인자 건 떼:께 또 <전남>

ㄹ. 사라미 한 이:심명 그걸 다러 올러가주구 똥 놀루른 지비 든든하지<강원>

(2ㄱ)은 ‘따르-(注)’ 활용형 ‘똥르-’가 나타난 경우이고 (2ㄴ~ㄷ)은 ‘X르-’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 앞에서 /X르르-/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특히 (2ㄴ~ㄷ)은 지역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ㄴ~ㄷ)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추’로 보는 견해이다. 허웅(1985)에서는 「몰르다」, 「달르다」 따위 말들은,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르-」따위가 「몰르-」로 바뀐 것은, 그 활용형 「몰라」에 발맞추기 위함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교체의 원인을 음절 구조와 관련시켜 보는 견해이다. 강창

1) 이 논문에서는 어간의 교체에 대해 다룰 것이므로 (1ㄷ)의 경우는 이후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2) {간장을 적게 따를 거. 또 간장 많이 먹고 싶지 않으면 그저 전혀 따르지 않아서도 지금 그저 그대로.}<지역어조사보고서>

석(1984)에서는 (3)과 같이 자음의 상대적 강도를 제시하면서 ‘ㄹ’을 가장 약한 자음으로 분류하고, 약한 자음일수록 음절초 위치에서 제약되고 음절말에 적합하다는 음절구조 제약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어 자음의 강, 약

I	II	III	IV	V
유기음, 경음	ㅅ, ㅈ	ㄷ, ㅌ, ㄱ	ㄴ, ㅁ	ㅇ
← 강자음 약자음 →				

따라서 ‘불르다’, ‘빨르다’, ‘잘르다’ 등에서의 ‘ㄹ’ 첨가의 근본적인 동기는 불안정한 음절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모음탈락이 불가능한 경우 패러다임 내의 ‘ㄹ+ㄹ’의 안전한 음절구조를 가진 이형태가 마침 존재함으로써 유추가 가능해져 결국 패러다임의 규칙화까지 이룩된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 견해는 ‘홀르-’형을 이미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교체형으로 보는 견해이다. 최명옥(1993)에서는 ‘호르-’를 기저형으로 하여서는 어미 ‘-아X’와 통합될 때 ‘ㄹ’이 첨가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또한 ‘홀르-’를 기저형으로 하여서는 자음이나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ㄹ’이 삭제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호르-’와 ‘홀르-’는 어휘화된 교체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 교체형은 전시기의 어떤 어형에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르’ 말음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은 개별 어휘마다 혹은 지역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르’ 말음 용언 어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적인 지역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르’ 말음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르’ 말음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국어

원에서 발행한 <2005~2012 권역별 지역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전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지역 제보자로부터 획득한 구술 발화를 전사한 자료로 각 지역별 방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³⁾ <2005~2012 권역별 지역어 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1〉 2005~2012 권역별 지역어 조사 결과 보고서

이름	지역(년도)	조사내용
강원지역어전 사보고서	삼척시(2004), 원주시(2005), 양양군(2006), 홍천군(2007), 평창군(2008), 인제군(2009), 정선군(2011)	일생 의례, 세시 풍속과 놀이, 거 주 생활, 의생활, 식생 활, 생업 활동, 각종 질 병과 민간요법 등
경기지역어전 사보고서	용인시(2004), 화성시(2005), 포천시(2006), 파주시(2007), 양평시(2008), 이천시(2009), 강화군(2011)	
경남지역어전 사보고서	고성군(2004), 창원시(2005년), 창원군(2006), 산청군(2007), 남해군(2008), 울주군(2009), 하동군(2011)	
경북지역어전 사보고서	보문동(2004,2010), 상주시(2005), 청송군(2006년), 고령군(2007), 청도군(2008), 의성군(2009), 봉화군(2011)	
전남지역어전 사보고서	곡성군(2005), 진도군(2006), 영광군(2007), 보성군(2008), 영암군(2009), 신안군(2010년), 광양시(2011)	
전북지역어전 사보고서	남원시(2005), 무주군(2006), 군산시(2007), 고창군(2008), 임실군(2009)	
제주지역어전 사보고서	제주시 한경면(2005), 서귀포시 호근동(2006), 서귀포시 표선면(2007), 제주시 구좌읍(2008), 서귀포시 섹달동(2009), 서귀포시 가파도(2011)	
충남지역어전 사보고서	대전광역시(2005), 논산시(2006), 서천군(2007), 예산군(2008), 서산시(2009), 공주시(2010), 천안시(2011)	
충북지역어전 사보고서	제천시(2005), 청원군(2006), 충주시(2007), 옥천군(2008), 보은군(2009), 영동군(2011)	

3) 더욱이 각 지역별로 동일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자료의 성격이 다르지 않고 균질하다는 점도 이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1차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르’ 발음 용언 어간을 지닌 어휘를 추출하여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고, 어휘 목록에서 지역어 자료에서 최소 1회 이상 나타나는 어휘들을 선별하여 분석 자료에서 세부 검색을 진행하였다.⁴⁾

(4) 검색 어형 목록

ㄱ. 동사

a. 2음절 어간 : 가르다, 거르다, 고르다, 구르다, 기르다, 끄르다, 나르다, 누르다, 두르다, 따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부르다, 어르다, 오르다, 이르다, 자르다, 조르다, 지르다, 찌르다, 흐르다

b. 3음절 어간: 가파르다, 거스르다, 까부르다, 띠오르다, 머무르다, 묻지르다, 서두르다, 어지르다, 저지르다, 주무르다, 휘두르다

ㄴ. 형용사

a. 2음절 어간: 고르다, 다르다, 무르다, 바르다, 빠르다, 이르다

b. 3음절 어간: 게으르다, 서투르다

2. ‘X르-’ 어간의 교체 유형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교체 양상을 토대로 ‘X르-’ 어간의 교체 양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유형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X르-/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Xㄹ-/로 나타나는 이른바 규칙 활용에 속하는 어휘들이 해당되고, II 유형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X르-/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Xㄹㄹ-/로 나타나는 불규칙 활용에 속하는 어휘들이 해당한다. III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은 모음 어미 앞에서 /Xㄹㄹ-/로 교체되는 것은 II형과 같으나, 자음 어미 앞에서 /X르-/형과 /Xㄹㄹ-/형이 모두 나타나 수의적인 교체를 보인다는 점에서 II형과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IV 유형은 역시 모음 어미 앞에서는

4) ‘르’ 발음 용언 어간을 가졌으나, 지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휘들은 ‘무르다(동), 버르다, 사르다, 으르다, 거스르다, 무찌르다, 아우르다, 추스르다, 타이르다, 그르다, 너르다, 올바르다, 옥박지르다, 약삭빠르다’ 등으로 이들이 지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1차적인 이유는 구어에서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이고, 2차적인 이유는 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러르다, 다다르다, 었지르다(어쿨다)<전북>, 으르다(알기다)<전북>, 약삭빠르다(야가빠지다)<전북>, 올바르다(똑바라지다)<전북>, 버르다(중구다)<전남>, 다르다(뜨나다)<제주> 등)

Ⅱ, Ⅲ형에서와 같이 /Xㄹㄹ-/이 나타나나 자음 어미 앞에서는 /Xㄹㄹ-/형만 나타나는 어휘들이 해당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교체 양상의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자음 어미 앞	/Xㄹ-/	/Xㄹ-/	/Xㄹ-/~ /Xㄹㄹ-/	/Xㄹㄹ-/
모음 어미 앞	/Xㄹ-/	/Xㄹㄹ-/	/Xㄹㄹ-/	/Xㄹㄹ-/

2.1. Ⅰ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자음 어미 앞	/Xㄹ-/	/Xㄹ-/	/Xㄹ-/~ /Xㄹㄹ-/	/Xㄹㄹ-/
모음 어미 앞	/Xㄹ-/	/Xㄹㄹ-/	/Xㄹㄹ-/	/Xㄹㄹ-/

Ⅰ 유형에는 유일하게 ‘따르-’만 속하는데, 전 지역어에서 자음 앞에서는 ‘따르-’로 모음 앞에서는 ‘따ㄹ-’로 나타난다. 그러나, ‘따르-’와 ‘따ㄹ-’의 교체가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방식의 교체를 보여 주는 경우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5)
- ㄱ. 탈터라<경기>, 딸드라<충북>, 딸:고/딸:더라<전북> 딸:드라/딸:고<전남>, 딸코<경남, 경북>
 ㄴ. 따루니까/따뤄라<경기>, 따루구/따뤄서<충북>, 따루더라/따뤄서<충남>, 따루고/따뤄따<전북>, 따루더라/따뤄따 <전남>, 따루고/따뤄따<경남>, 따루고/따루어따<경북>

(5ㄱ)은 ‘따르-’가 자음 어미 앞에서도 모음 어미 앞에서도 같이 ‘으’ 탈락이 적용되어 어간이 ‘딸-’로 나타나는 예들이고, (5ㄴ)은 ‘따르-’에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어 ‘따루-’가 된 이후에,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따루-’의 경우, 모음 앞에서 ‘ㄷ’가 탈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뤄서, 따뤄따’ 등의 형태가 나타나

는 경우이다. (5ㄱ, ㄴ)은 모두 교체형을 단일한 기저형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따르-’의 경우 공식적으로 지역어에서 ①‘따르-’(자음어미 앞)~‘따르-’(모음 어미 앞), ②‘따루-’(자음, 모음 어미 앞), ③‘따르-’(자음, 모음 어미 앞)의 세 가지 교체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ㄱ. 그러치요 까파른 텐 모 다지요<강원>

ㄴ. 까파르구 머 여기 또 미말르구 자갈 망쿠 그르잉까 몬 허구 <강원>

ㄷ. 여기 사니 다 웅만한 텐 머 아주 대:우 까파르지 아는 텐 다: 그르케 해 머저씨요, 아주 대:우 까파라서 소가 몬 깔: 때는, 패이루 이르케 파구 해 먹꾸 그래씨요. <강원>

(6)은 ‘가파르-’의 활용형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강원 지역어의 예이다⁵⁾. 이 지역어에서 ‘가파르-’는 자음 어미 앞에서 ‘가팔르-’는 나타나지 않고, ‘가파르-’로만 나타난다. 또한 모음 어미 앞에서도 (6ㄷ)과 같이 ‘가팔라서’가 아닌 ‘가파라서’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서 ‘가파르-’의 기저형은 ‘가파르-’로 자음 어미와 모음 어미 앞에서 모두 ‘으’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보인다.⁶⁾

2.2. II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자음 어미 앞	/X르-/	/X르-/	/X르-/~ /X르르-/	/X르르-/
모음 어미 앞	/X르-/	/X르르-/	/X르르-/	/X르르-/

2장에서 제시한 검색 어형 중에서 자음 어미 앞에서는 /X르-/로, 모음 어

5) ‘가파르다’의 출현 빈도가 낮은 것은 ‘가파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파르다(갈크막지다)<전북>, 가파르다(까필지다, 비알지다)<충북> 등)

6) 그러나 이 지역어에서 자음 어미 앞에서의 ‘가파르-’는 총 3회, 모음 어미 앞에서의 ‘가파르-’는 단 1회 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어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미 앞에서는 /X르르-/로 교체하는 어휘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르’
말음 용언 어간 중 순수하게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는 실제로 지역어에서
는 없다는 것이다.⁷⁾

2.3. III 유형

III형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 /X르-/~/X르르-/ 교체가 나타나는 어휘들이
속하는데 몇몇 어휘를 제외한 대다수의 어휘가 여기에 속한다. 해당 어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 ㄱ. 가르다, 거르다, 고르다, 구르다, 기르다, 끄르다, 나르다, 누르다, 두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부르다, 어르다, 오르다, 이르다, 자르다, 조르다,
지르다, 찌르다, 흐르다, 까부르다, 떠오르다, 머무르다, 문지르다, 서두르다,
어지르다, 주무르다, 휘두르다
- ㄴ. 고르다, 다르다, 무르다, 빠르다, 이르다, 게으르다, 서투르다

즉, ‘르’ 말음 용언 어간은 모두, 자음 앞에서 /X르-/~/X르르-/의 수의적
교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어휘에 걸쳐서 어간이 재구조화된 /X르르-/
/형이 나타나는 것은 /X르르-/의 세력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더
욱이 아래 (8)과 같은 예는 /X르르-/의 세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한
다.⁸⁾

(8)

- ㄱ. 물장을 çek영 뜯을 꺼 또 물장 하영 먹꾸정 아녀머는 기자 원 뜯르지 아녕도
시방게 기자 그대로⁹⁾<제주>

7) ‘순수하게’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I유형의 경우 자음
어미 앞에서 다른 교체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X르-/만 나타나는 어휘를 말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는 III유형과 구별된다.

8) 이 외에도 많은 지역어에서 ‘르’ 말음 용언 어간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X르르-/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 /X르르-/로의 어간 재구
조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룰 것이다.

- ㄴ. 조침 스랑 이제 무레 켜 켜 허민 이젠 저 무신 거세에 베 험버게 이제 그거세
삼베에 이제 차룻차게 낱 그걸 이젠 물 낱 똥루민 이젠 노랑헌 무리, 무리
저 흐끔 영 멘질멘질허게시리 나옴따다.¹⁰⁾ <제주>

앞서 우리는 I 유형에서 ‘따르-’의 경우만 유일하게 규칙활용을 함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8)에서와 같이 일부 지역어에서는 ‘따르-(注)’에도 어간이 재 구조화된 ‘똥르-’형이 나타나 ‘따르-’와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대국어에서 ‘르 규칙 용언’과 ‘르 불규칙 용언’의 경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¹⁾

2.4. IV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자음 어미 앞	/X르-/	/X르-/	/X르-/~ /X르르-/	/X르르-/
모음 어미 앞	/X르-/	/X르르-/	/X르르-/	/X르르-/

IV유형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X르-/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즉 /X르르- /로 어간 단일화가 이루어진 어휘들이 속하게 되는데, 앞서 확인한 것처럼 ‘X르-’어간을 갖는 어휘는 모두 /X르-/~/X르르-/ 교체를 보이고 있어 IV 유형에 해당하는 어휘는 없다. 그러나 III유형의 속하는 어휘들 중 어간이 /X르-/형보다 /X르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어간의 경우, 이후에는 /X르르-/로 어간이 단일화되어 IV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데 ‘마

9) {간장을 적게 따를 거. 또 간장 많이 먹고 싶지 않으면 그거 전혀 따르지 않아서도 지금 그거 그대로.}<지역어조사보고서>

10) {조짚 살라서 이제 물에 담가서 그렇게 하면 이젠 저 무슨 것예요 베 험겅에 이제 그것에 삼베에 이제 채통짝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는 물 넣어서 따르면 이제는 노란 물이, 물이 저 조금 이렇게 만질만질하겠끔 나옴따다.}<지역어조사보고서>

11) ‘르’ 규칙 용언이라 일컫는 ‘따르다’의 어간이 자음 앞에서 ‘따르-’와 ‘똥르-’의 수의적 교체를 보이고, ‘르 불규칙 용언이라 일컫는 ‘고르다, 가르다 등’의 어간 역시 자음 앞에서 ‘고르-, 가르-’와 함께 ‘골르-, 갈르-’가 나타나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이상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의 경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르다, 바르다, 부르다’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3. ‘X르-’ 어간의 교체 양상의 특징

우리는 앞 장에서 ‘X르-’ 어간의 교체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따르-’의 경우만 유일하게 규칙적인 활용을 보여 1유형에 속하고, 나머지 모든 ‘X르-’ 어간은 /X르-/~/X르르-/교체를 보이는 2유형에 속함을 확인 하였다. 2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X르-/~/X르르-/교체를 보인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각 지역어마다 혹은 각 어휘마다의 교체 양상까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X르-/~/X르르-/교체가 지역에 따라, 어휘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지역별 특징

먼저 지역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자. (1)은 각 지역어별로 ‘X르르-’형이 나타나는 어휘들을 나열한 것이다.¹²⁾

〈표3〉 지역어별 ‘X르르-’형 실현 어휘

지역	총조사 어휘수	출현 어휘수	실현 어휘	
경북	41	3	㉞	누르다, 마르다, 바르다
경남	41	1	㉞	누르다
전북	41	21	㉞	고르다, 나르다, 누르다, 두르다, 마르다, 모르다, 문지르다, 바르다, 부르다, 오르다, 자르다, 지르다, 주무르다, 흐르다, 찌르다, 까부르다, 머무르다, 어지르다
			㉟	무르다, 다르다, 게으르다
전남	41	16	㉞	가르다, 거르다, 고르다, 기르다, 나르다, 누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부르다, 오르다, 지르다, 문지르다, 주무르다, 흐르다
			㉟	다르다, 게으르다

12) 빈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지역어 자료에서 1회라도 출현한 경우 모두 제시하였다.

지역	총조사 어휘수	출현 어휘수	실현 어휘	
경기	41	22	동	가르다, 고르다, 기르다, 구르다, 나르다, 누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부르다, 오르다, 자르다, 지르다, 흐르다, 문지르다, 주무르다, 머무르다, 어지르다
			형	다르다, 무르다, 빠르다, 게으르다
강원	41	19	동	고르다, 기르다, 나르다, 누르다, 두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부르다, 오르다, 이르다, 자르다, 지르다, 머무르다, 문지르다, 서두르다, 휘두르다
			형	다르다
충북	41	25	동	가르다, 거르다, 고르다, 기르다, 나르다, 누르다, 두르다, 마르다, 모르다, 오르다, 바르다, 부르다, 자르다, 지르다, 자르다, 찌르다, 흐르다, 문지르다, 서두르다, 끄르다, 까부르다
			형	다르다, 무르다, 빠르다
충남	41	28	동	가르다, 고르다, 구르다, 기르다, 나르다, 누르다, 두르다, 마르다, 모르다, 오르다, 바르다, 어르다, 이르다, 자르다, 부르다, 지르다, 조르다, 찌르다, 흐르다, 문지르다, 서두르다, 주무르다, 까부르다,
			형	무르다, 서투르다, 빠르다, 다르다, 게으르다
제주	41	17	동	가르다, 거르다, 고르다, 기르다, 누르다, 두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부르다, 오르다, 이르다, 찌르다, 문지르다, 흐르다
			형	다르다, 게으르다

‘X르르-’ 교체형은 충남(68.3%) > 충북(61%) > 경기(53.7%) > 전북(51.2%) > 강원(46.3%) > 제주(41.5%) > 전남(39%) > 경북(7.3%) > 경남(2.4%)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X르르-/로의 어간 재구조화는 충남과 충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과 충북 지역어에서는 /X르르-/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져 출현하는 어휘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어휘의 사용 빈도도 상당히 높다. 충남 지역어에서 대표적으로 ‘모르-’의 경우, ‘모르-’는 31회 나타나는데 반해 ‘몰르-’의 경우 157회가 나타나고, ‘바르-’의 경우도 ‘바르-’는 단 4회만 나타나나 ‘발르-’의 경우는 무려 10배가 넘는 51회 나타난다. 이에 반해 경북과 경남 지역어에서는 ‘X르르-’ 교체형을 보이는 어휘가 아주 적은데다가 출현하는 어휘의 빈도도 낮다. 경남 지역어에서 ‘놀르-’의 경우 단 1회, 경북 지역어에서도 ‘놀르-’와 ‘발르-’가 각각

3회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¹³⁾ 이를 통하여 /X르르-/재구조화는 충남, 충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며, 이 지역이 속해 있는 중부 방언에서 1차적으로 서남 방언으로 확산되었으며 경북과 경남이 속한 동남방언으로도 그 확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어휘별 특징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지역어에서는 'X르-'형과 'X르르-'형이 수의 적 교체를 보이는 III유형에 해당하는 어휘가 가장 많다.

(9) III유형 어휘

- ㄱ. 가르다, 거르다, 고르다, 구르다, 기르다, 끄르다, 나르다, 누르다, 두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부르다, 어르다, 오르다, 이르다, 자르다, 조르다, 지르다, 찌르다, 흐르다, 까부르다, 떠오르다, 머무르다, 문지르다, 서두르다, 어지르다, 주무르다, 휘두르다
- ㄴ. 고르다, 다르다, 무르다, 빠르다, 이르다, 게으르다, 서투르다

/X르르-/로의 재구조화는 형용사보다는 동사에서, 3음절 이상 어간보다는 2음절 어간에서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어휘에 따라 'X르-'형과 'X르르-'형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4>는 각 지역어 별로 'X르-'형과 'X르르-'형이 우세한 어휘를 각각 추출한 것이다.¹⁴⁾

13) 'X르르-'형이 이 지역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X르르-'형이 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는 추후의 통시적 연구에서 'X르르-/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확산되었는지, 'X르르-'형이 출현하여 'X르-'형과 경쟁하다 소멸하였는지 등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 해당 어휘가 지역어에서 최소 10회 이상 나타나는 어휘를 추출하여 /X르-/형과 /X르르-/형의 출현 횟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뒤 표에 제시하였다. '다르다'의 경우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출현 빈도가 적어 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르다'의 출현 빈도가 적은 이유는 지역에 따라 혹은 제보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대신에 '틀리다'로 답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ㄱ. 그 이리케 달쭈랑 날짜로는 똑가튼디 뚜드롱 거시 틀리쥬<전남>

ㄴ. 가튼 일가는 일간디 파가 틀리제<전남>

ㄷ. 지그른 전부라 노네서 콤바이가 다 비민서 털자나요, 그이 아주 완저니 틀리지요<강원>

〈표4〉 우세 어휘 빈도

	‘Xㄹㄹ-’형 우세 어휘	‘Xㄹ-’ 형 우세 어휘
충남	마르다(95.8), 모르다(83.5), 바르다(92.7), 부르다(86.7), 오르다(100), 자르다(91.6), 찌르다(90.9)	없음.
충북	마르다(92.9), 바르다(82.6), 부르다(73.3)	모르다(60.7)
강원	부르다(52.2)	마르다(60.5), 모르다(78.5)
전북	마르다(76.7), 바르다(76)	모르다(81.4), 부르다(63.6)
전남	없음.	마르다(65), 모르다(97), 바르다(81.8), 오르다(90), 까부르다(100)
경기	바르다(95.5), 부르다(68.6), 기르다(100)	모르다(89.3)
제주	바르다(71.4), 마르다(89.5), 부르다(67.6), 오르다(69.6)	모르다(79)
경북	없음.	모든 어휘 해당
경남	없음.	모든 어휘 해당

* ()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어간의 출현 횟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3〉에서 우리는 ‘바르-’의 경우 충남, 충북, 전북, 경기, 제주 지역어에서, ‘부르-’의 경우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제주 지역어에서 ‘마르-’의 경우 충남, 충북, 전북, 제주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Xㄹㄹ-/형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어간의 제1음절이 양순음과 원순모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같은 환경을 가진 ‘모르-’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모르-’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Xㄹㄹ-’ 교체 형이 가장 많은 어휘에서 나타나는 지역은 충남이고, 충남 지역어에서는 10회 이상 나타나는 어휘 모두, ‘Xㄹㄹ-’ 형이 우세하다. 그만큼 충남 지역어에서 /Xㄹㄹ-/ 어간 재구조화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어에서는 /Xㄹㄹ-/로 어간 재구조화된 ‘몰르-’가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모르-’가 우세하다.

2차적인 이유는 ‘다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부다<전북>, 달롭다<충남,충북>, 뜨나다<제주>)

(10)

- ㄱ. 친척 아니더라도 친구지가니 잘 안다든가, 요로강개 부구 내지, 그 외 몰름서 서로 알면, 어디 저 장애를 바도 서로 인사 아나고 모르는 사라믄 물론개 아너지.<전북>
- ㄴ. 고개 어:던가 몰르게 우리가 모르개 고장이 나는 게 망커던.<경기>
- ㄷ. 내가 양가지 그사람더리 내한테 모르지 그래니까루 이동내 사러두 어떤지 비 머여 절믄내덜 와 가주서는 인사 안 해구 그래니까 승:이 몬:지 이르미 몬:지 그뚜 몰르구 지금 마 마:너유.<충북>
- ㄹ. 그래 인제 나리 조아야지만 대는데 이개 널구서 또 걷 한 이틀 말르믄 꽤 마이 마르는데 또 썩내이겨우고 머 비가오고나면 또 이걸 또 갠 뒤자바 나야대요.<강원>
- ㅁ. 망:우~이 야글 해도 안데고 해서, 똥을 보르면 난:는데서 똥을 불러논개, 주거도 안볼릴라고 올:고 야:다니서, <전남>
- ㅂ. 나가 일허다 바비 되믄 나가 업뜨려 가 일허믄 지비서 부르지요, 불르믄 드가 밤 먹꾸 또 그 나가 일허구.<강원>

(10)은 한 화자의 발화 내에서 /X르-/형과 /X르르-/형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경우이다. (10ㄱ, ㄴ, ㄷ)은 ‘모르-’와 ‘몰르-’가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예들인데, 이들 지역어에서는 ‘모르-’형이 훨씬 우세하다. /X르-/형이 우세한 어휘의 경우, 한 화자의 발화 내에서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10ㄹ, 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원 지역어에서 ‘마르-’는 /X르-/형이 우세하고 전남 지역어에서 ‘보르-’도 /X르-/형이 우세한데 이들 모두 화자 내 수의적 교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ㅂ)의 ‘부르-’는 강원 지역어에서 /X르르-/형이 우세를 보이는 어휘이다. 그런데 왜 한 화자의 발화 내에서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것일까? <표3>을 보면, 강원 지역어에서 ‘부르다’는 /X르르-/형이 우세하나, 그 비율이 52.2%로 /X르-/형이 나타나는 비율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 내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것이다. 화자 내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이 어휘들은 현재 /X르-/형과 /X르르-/형이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며, 향후 다른 어휘와 마찬가지로 /X르르-/형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어간 재구조화의 확대

지금까지 ‘르’ 말음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X르르- /로의 어간 재구조화는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어에서는 (1)과 같이 ‘X르-’ 어간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어간에 ‘르’가 첨가된 교체형이 나타나고 있다.

(11)

- ㄱ. 도:니 모잘르른 어쩔 쑤 업씨 덜 조은 소두 사고 인제 그러케 하는데. <경기>
기>
- ㄴ. 게 머 충:해때 그냥 가서 말:루 모:잘르머는 투폴 해야대거든.<경기>
- ㄷ. 우리 온 날 저, 여천씨 거리 그계로 거그까지 웅개로 장동아제가, 자네 기달리라고<전북>
- ㄹ. 그르키 기달리구 느루 늦춰가매 이:년<충북>

(11ㄱ, ㄴ)은 화자가 ‘모자라다’의 어간을 ‘모자라-’가 아닌 ‘모자르-’로 잘못 인지하여 여타의 ‘르’ 말음 용언과 마찬가지로 /X르르- /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져 나타난 형태이다. (11ㄷ, ㄹ)은 ‘기달르-’가 아닌 ‘기달리-’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1차적으로는 ‘기다리다’의 어간을 ‘기다르-’로 인식하여, ‘기달르-’가 나타나고, 이것의 영향으로 ‘기다리-’에도 이 같은 교체형이 확대 적용되어 ‘기달리-’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12)

- ㄱ. 실험 결과를 기달리려면, 거의 이틀 삼일이 걸려 <구어말뭉치>¹⁶⁾
- ㄴ. 누구네 집 엄마는 기달리고 막 이러는데<구어말뭉치>
- ㄷ. 나 전공 학점 모잘라 가지고 아까 봤지?<구어말뭉치>
- ㄹ. 그러다 보면 공격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숫자가 모잘라기 때문예요<구어

15) <전북 구비문학대계>에 “점드락 기달르고 있었는디 인자사 늦게 왔냐?”의 예문을 확인할 수 있다.

16) <구어 말뭉치>로 표시한 것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현대구어 원시말뭉치>이다. 이 자료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구어 담화를 수집하여 정리한 말뭉치로, 구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말뭉치>

실제로 현대 구어에서는 (12)에서와 같이 ‘모자라다’와 ‘기다리다’가 ‘모잘라-’와 ‘기달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13) 너가 언젠가는 철들면 그거슬 깨달른 때가 이꼰찌 <전북>

(13)은 ‘ㄷ’불규칙 용언인 ‘깨닫다’가 ‘깨다르’이 아닌 어간에 ‘ㄹ’이 첨가된 ‘깨달른’으로 실현된 독특한 경우이다. ‘깨닫다’의 어간 ‘깨닫-’과 어미 ‘-으X’가 결합하면 [깨다르]로 실현되는데 화자는 이를 ‘르’ 말음 용언 어간과 유사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르’ 말음 용언 어간이 /Xㄹ르-/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에 이끌려 ‘ㄹ’을 첨가한 것이다.

‘깨닫다’를 제외한 다른 ‘ㄷ’ 불규칙 용언의 어간도 모음 어미와 결합 시 ‘ㄹ’이 첨가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깨닫다’를 제외한 다른 ‘ㄷ’ 불규칙 용언에서는 (14)에서처럼 모음 어미와 결합 시 ‘ㄹ’이 첨가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14)	‘ㄷ’불규칙 용언	모음 앞	‘ㄹ’첨가형
	ㄱ. 걷다(걸음을)	걸으면	*걸르면
	ㄴ. 듣다	들으면	*들르면
	ㄷ. 묻다(길을)	물으면	*물르면
	ㄹ. 긴다	길으면	*길르면
	ㅁ. 깨닫다	깨달으면	깨달르면

‘깨닫다’를 제외한 다른 ‘ㄷ’ 불규칙 용언의 어간의 경우 모음 어미와 결합 시 ‘ㄹ’이 첨가되면, (14ㄱ)의 경우는 동사 ‘거르다’의 교체형 ‘걸르-’와, (13ㄷ)의 경우는 형용사 ‘무르다’의 교체형 ‘물르-’와, (14ㄹ)의 경우는 ‘기르다’의 교체형 ‘길르-’와 동음이의어가 된다. (14ㄴ)의 경우는 ‘들르다’라는 동사와 동음이의어가 된다. 따라서 동음이의어 형성을 피하기 위하여 (14ㄱ~ㄹ)은 어미와의 결합 시 ‘ㄹ’이 첨가되지 않고, 동음이의어 생성과 관계가 없는 ‘깨닫-’의 경우만 어미와의 결합 시 ‘ㄹ’이 첨가되는 것이다.

(15)

ㄱ. 그런데 이제 그 그 실랑이 인제 온 빠끼는거 그저 온꼬름 풀르고 뭐 이런거 해주구 이라구 인제 상을 하나 간따 놔서 그때 술먹꼬 그랜데 난 그런걸 몰라썬요.<경기>

ㄴ. 또 이 원삼 그거 꼬 꼬 꼬 꼬건 끈 풀르구 그개 그래능거지유 머.<충북>

(15ㄱ)은 동사 ‘풀다’가 경기 지역어에서 자음 어미 ‘-고’ 앞에서 ‘풀-’이 아닌 ‘폴르-’로 나타나는 특이한 교체형을 보여 준다. 이는 /X르르-/로의 어간 재구조화와 ‘르’ 발음 용언 어간에 이어 ‘르’ 발음 용언 어간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심지어 ‘폴르-’형은 구어에서는 물론 문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⁷⁾ ‘폴-’이 ‘폴르-’로 나타나는 것은 현대 국어에서 ‘으’가 삽입되는 현상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 국어에는 용언 어간 말에 ‘으’가 삽입되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어간 말 자음이 ‘르’인 경우에도 (17)과 같이 ‘으’가 삽입된다. 그러나 지역어에서 ‘풀다’를 제외한 다른 ‘르’ 발음 용언 어간의 경우 ‘으’가 삽입된 형태에 ‘폴르다’ 처럼 ‘르’이 첨가된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16)

ㄱ. 아이구, 별 말씀 다 하시네, 그냥 이르게 읍씨 사르니께(사니까) 그냥 그르치 머<충북>

ㄴ. 사래미 츠미는 꼬러 사래미 아피서 꼬르야(끌어야) 가 막.<충남>

‘풀다’의 경우 ‘으’가 삽입되어 1차적으로 ‘푸르다’가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르’ 발음 용언 어간의 재구조화 양상에 끌려 ‘폴르-’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¹⁸⁾ 또한, ‘풀다’와 유의 관계에 있는 ‘꼬르다’의 ‘르’ 첨가형 ‘끌르다’와의 형

17) ㄱ. 머리 풀르고 가자고 해서요 <구어말뭉치>

ㄴ. 김연아가 14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 올림픽파크 피겨스케이팅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마친 후 스케이트 끈을 풀르고 있다. <osen. 2014.02.14>

ㄷ. 이종 남한측 출입국사무소(CIQ)에서 40분, 북한측 출입국사무소(CIQ)에서 40분을 거친다고 볼 때, 이를 왕복으로 계산하면 총 2시간 40분 정도를 그저 짐풀르고 세관대를 거치고, 수속 빠른 왕복 20분을 제외하고는 기다리는 시간으로 차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겨레. 2005. 12.01>

18) ‘풀다’에 ‘으’가 삽입되어 ‘푸르다’가 되면, 형용사 ‘푸르다’와 동음이의어가 된다. 따라서 동음이의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어간에 ‘르’이 첨가되어 ‘폴르-’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태론적 혼효에 의해 ‘폴르다’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폴다’를 제외한 다른 ‘르’ 말음 용언 어간에 ‘르’이 첨가된 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르’말음 용언 어간에 ‘으’가 삽입되면 ‘르’ 불규칙 어간을 가진 용언과 동음이의어가 되나 ‘르’ 불규칙 어간의 경우 ‘X르르-’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X르르-’ 어간 재구조화의 확대로 문어에서도 어간 재구조화가 적용된 용언 어간이 명사와 명사형에까지 나타난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17)

- ㄱ. 선종필 대표는 “2010년 1월 이후 상업용 건축물 거래량이 과거에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올름세를 보이고 있다”며<매일경제 2010.08.22>
- ㄴ. ...정보의 걸름망이자 가장 옳은 장치는 곧 사람이다. 그 이상의 더 좋은 장치는 없다”라고 말했다.<매일경제.2013.05.20>
- ㄷ. 결정의 순간, 백지영이 놀름과 동시에 영지도 버튼을 눌렀다.<리뷰스타 2013.04.13>
- ㄹ. 꼬동제련은 계약 이후 보통 2개월 뒤에 납품이 이뤄져 이익의 환원이 빨름에도 외환관련 평가손실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컸다는 설명이다<한국경제.2011.12.27>
- ㅁ. 또 인터벤션센터에는 김성현 교수에 이어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강성권 교수를 영입해 말초혈관질환, 눈물흘름(유루증)인터벤션, 종양 혈관중재술 등 다빈도가 높은 중증질환에 있어 전문영상시술이 가능하다<파이낸셜뉴스.2013.03.18>

그러나 문어의 경우 더 많은 예를 확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현대 국어에서 ‘르’ 말음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어휘가 자음어미 앞에서 /X르-/형과 /X르르

-/형의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Ⅲ유형에 속한다.

둘 째, /X르-/형과 /X르르-/형의 수의적 교체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X르르-’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나타나는 어휘의 비율은 충남(68.3%) > 충북(61%) > 경기(53.7%) > 전북(51.2%) > 강원(46.3%) > 제주(41.5%) > 전남(39%), > 경북(7.3%) > 경남(2.4%) 순으로, 충남과 충북에서 어간 재구조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서남 방언, 동남 방언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 째, /X르-/형과 /X르르-/형의 교체 양상은 어휘마다 다른 특성을 보인다. /X르르-/형은 형용사보다는 동사에서, 3음절 용언 어간보다는 2음절 용언 어간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X르르-/형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어휘는 ‘마르다, 바르다, 부르다’이다.

넷 째, ‘르’ 말음 용언 어간에 한해 나타난 /X르르-/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유사한 환경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어에서도 이러한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국어학13. 국어학회
- 김방한(1988), 「유추적 변화의 조건」, 한글200. 339-358
- 김성규(2000), 「불규칙 활용에 대한 몇 가지 논의」, 형태론 2-1. 121-128
- _____(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13. 25-44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11. 서울
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아문화연구소(「음운과 문자」(1966)에 재록. 신
구문화사)
- 김진우(1970), 「소위 변격용언의 비변격성에 관하여」, 한국언어문학 8·9.
한국언어문학회.
- 김 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국어학총서54. 태학사.
- 문양수(1977), 「국어의 불규칙활용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홍대논총9. 홍익
대학교
- 박선우(2002), 「현대국어 ‘르’ 불규칙 활용에 대한 고찰」, 한말연구10. 23-41
- _____(2004b), 「불규칙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한 검토」, 청람어문교육30.
223-249. 청람어문교육학회
- 배주채(1991), 「유추변화는 문법변화인가」, 주시경학보7. 주시경연구소.
- 소신애(2005), 「어간 재구조화의 진행 과정(2)-훈춘 지역 세대별 화자들의
활용 어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학45. 41-67. 국어학회.
- 오정란(1995), 「국어 ‘ㄹ’음의 특성과 결합적 제약」, 한국어학2. 한국어학회.
- 이문규(2009), 「음운 규칙의 공시성과 통시성-진행 중인 음운 변화의 기술
문제를 중심으로」, 한글285. 71-96
- 이진호(2006),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47. 39-63
- 장향실(1996), 「국어 ‘르변칙’의 원인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학4. 한국어
학회.
- 최명옥(1985), 「p-, s-, t- 變則動詞의 音韻現象」, 국어학14. 국어학회
- _____(1993),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24. 성곡
학술문화재단

최전승(1992), 『르와 러 변칙용언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19세기 후반 전라방언의 경우』, 『국어학연구백년사Ⅲ』, 서울 : 일조각
한영균(1990), 『불규칙활용.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허 응(1985),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 · 어제』, 서울:샘문화사
H. H. Hock, 1991,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대국어의 ‘르’ 말음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을 지역어별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르다~몰르다], [호르다~홀르다]와 같이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활용형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교체형이 지역에 따라, 어휘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현대 국어에서 ‘르’ 말음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어휘가 자음어미 앞에서 /X르-/형과 /X르르-/형의 수의적 교체를 보인다. /X르-/형과 /X르르-/형의 수의적 교체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X르르-’ 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나타나는 어휘의 비율은 충남(68.3%) > 충북(61%) > 경기(53.7%) > 전북(51.2%) > 강원(46.3%) > 제주(41.5%) > 전남(39%), > 경북(7.3%) > 경남(2.4%) 순으로, 충남과 충북에서 어간 재구조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서남 방언, 동남 방언으로 확대되고 있다. /X르-/형과 /X르르-/형의 교체 양상은 어휘마다 다른 특성을 보인다. /X르르-/형은 형용사보다는 동사에서, 3음절 용언 어간보다는 2음절 용언 어간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르’ 말음 용언 어간에 한해 나타난 /X르르-/로의 어간 재구조화는 유사한 환경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어에서도 이러한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 불규칙 용언, 규칙 용언, 어간 재구조화, 르 말음 어간, 유추

A Study of Features of ㄹ-final Verbal Stem Alternation

Lee Eun Seon

This paper aims to examining the replacement aspects of last consonant 'ㄹ' predicate stem of modern Korean language by regional dialect and identifying its characteristics. Current language has conjugated forms that is replaced voluntarily such as [모르다~몰르다] and [흐르다~흘르다]. This paper has examined how these replacement types, according to the region, appear depending on the vocabulary.

The replacement aspects of last consonant 'ㄹ' predicate stem of modern Korean language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and the majority of the vocabulary shows a voluntary replacement of /Xㄹ-/type and /Xㄹㄹ-/type before the ending consonant. The voluntary replacement of /Xㄹ-/type and /Xㄹㄹ-/type appears differently by each region. The ratio of vocabulary showing the restructuring between words such as /Xㄹㄹ-/ was in the order of Chungnam (68.3%)> Chungbuk (61%)> Gyonggi (53.7%)> Jeonbuk (51.2%)> Gangwon (46.3%)> Jeju (41.5%)> Jeonnam (39%)> Gyeongbuk (7.3%)> Gyeongnam (2.4%) where Chungnam and Chungbuk has shown the most active restructuring of stem between words and this is being expanded into southwest dialect and southeast dialect. The replacement aspects of /Xㄹ-/type and /Xㄹㄹ-/type shows a different characteristics for each vocabulary. For /Xㄹㄹ-/type, in verb rather than

adjective, and appears actively in the two-syllable predicate stem than the three-syllable predicate stem. The stem restructuring of /Xㄹㄹ-/ appearing only in the last consonant 'ㄹ' predicate stem appears by being applied and extended into similar environments. Such extended phenomenon appears even in a written language.

Key words : irregular conjugation, regular conjugation, restructuring of stem, ㄹ-final Verbal Stem, analogy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7월 2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